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의 1년 활동에 대한 약술

수신 : 연세誌 편집위원회

발신 : 제10대 총여학생회

97년 12월 - 98년 1월

「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우리 대학교 신학과 김균진 교수의 강의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폭력적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선거 기간 중에 시작하여 당선되자마자 대책 활동을 시작했다. 총여학생회 중심으로 몇몇 단과대 학생회와 여성 자치단체들, 그리고 관심있는 개인들이 「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을 알리는 자보와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위 이름으로 학교 당국과 김균진 교수를 만나,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균진 교수는 강의 시간에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맺어졌다.

학생운동 진영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재 및 성명서 개진

선거 기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선거 이후 총여학생회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가해자/피해자 측과 공동 자보 및 성명서를 개진하였다.

98년 1월

행당지구 강제 철거 및 빈민여성 성폭력에 대한 소토론회 및 규탄대회

97년 9월, 행당동 1-2 재개발 지구 강제 철거시, 용역깡패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여성운동 단위들이 대책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제10대 총여학생회는 연세대 내에서 소토론회와 지지방문을 제안했다. 토론은 진행되었으나 지지방문은 행당 지구와의 일정 조율이 되지를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연세대를 비롯한 다른 학교 여성운동단위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2월

18일 "Welcome to Yonsei 'womens' University!!" 신입생 OT 행사

오리엔테이션 기간,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를 벌였다. 남녀공학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현재의 대학 사회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김현미 선생님과 학생들의 좌담회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의 대학의 모습을 그리면서 토론하는 자리였으며, 문과대 풍물패의 공연과 황보령 씨의 공연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신입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대학 내 여성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표자회의(건)」 건설 및 참가

더 이상 한총련 산하의 전여대협이 여성운동의 연대체가 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연세대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 대학들이 대안적인 대표자회의의 건설을 준비하였다.

3월

5일 - 8일 제90회 세계여성노동자의 날 거리전 및 개념 뺏지 판매 및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
사회대 Beyond와 공동 개최로, 3.8 세계여성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개최했다. 3.8를 기념하는 각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과 여성노동자의 날의 유래, 그리고 현 경제위기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여성 노동권에 대한 비판 등으로 자보전을 했다. 또한 '우'의 뺏지를 제작, 판매하기도 했다.
연세대를 비롯한 '대표자회의'는 당일 개최된 '고용안전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공식 참가단으로 참석했다.

생활도서관 개관을 위한 준비 작업

[두입술 편집위원회] 구성 및 준집행부로서의 활동 시작

학내 생리대 자판기에 대한 실사조사

연세대 내에서 생리대 자판기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사조사를 진행하였다.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움'과 함께 학생회관 3층 여학생휴게실 개선 작업 시작

4월

11일 「따로, 또 같이 - 총여학생회/여성 자치단체 한마당」

총여학생회는 3월에 모이기 시작한 자치단체들과 한 자리에 모여 총여학생회 사업 계획을 발표, 총여학생회 예산에 대한 논의와 자치단체연석회의(가칭)을 제안하고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총여학생회 예산 인상에 대해 공동으로 요구안을 만들기로 결의했으며, 또한 여성자치단체들 간의 예산자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이후 연석회의의 방향 및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협의를 했다.

여성학 생활도서관 개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내걸었던 공약에 따라, 개인 기증과 도서 구입을 통해 생활도서관을 개관했으며, 동시에 총여실에 비치되어있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대출 체계를 마련하고 학우들에게 공개했다.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서울경기지역 여성연대회의 주관으로 연세대를 비롯한 12개 대학에서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목적은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재규정과 학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선전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었다. 약 1000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설문을 모을 수 있었으며, 특히 연세대학교의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성폭력 학칙 제정 투쟁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었다.

5월

14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

총여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연대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간 여성연대회의에서 만든 학칙의 골격을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전국적으로 제안이 되어 그 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에 관심있는 타 지역, 타 단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후 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

다.

18일-22일

「여성의 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거부한다! - Let's Break the Mirror!!」 미인대회 반대 문화제

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계기로, 총여학생회의 제안과 후원으로 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사회에서 여성들의 대상화하는 가부장적 시선을 비판하는 조형물 설치와 자보전, 작은 영화제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결권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2개의 소규모 '수다모임'을 개최했다.

「여대생 먹고 살기 대책위원회(가칭)」 제안 및 활동 시작

경제 위기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여성노동권에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대학들은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마련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첫 활동으로는 공동 성명서 발표 및 대자보 활동, 그리고 여성민우회 캠프 참가단을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총여학생회 예산 5%로 인상 확정

총여학생회 예산에 대해 총학생회와의 논의 끝에 5%로 확정했으며, 또한 예산 산출을 위한 공식을 통과시켰다. 관습화되어 있던 총여학생회 예산을 여학생 비율에 따른 공식으로 전환했다.

(두입술 편집위원회) 창간준비호 발간 및 총여학생회로부터의 독립

6월

25일 「여대생 먹고 살기 대책위원회」 발족식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인 발족식을 가졌다.

7월

17일 - 18일 여성민우회 개최 예비취업여대생을 위한 캠프 「여성의 현실, 몸으로 느끼고 희망을 조직하자」 참가 및 먹고살기대책위 공동 집회 개최

현 사회 여성의 노동현실 속에서 자신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뽑아내고, 다양한 정보와 자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개인적인 준비계획과 조직적인 요구내용과 사회적인 연대를 위한 캠프가 개최되었다.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로 전환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여성노동권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여대생먹고살기대책위]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로 전화했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4자 테이블을 구성, 함께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18일 [제1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4자 테이블에서 함께 매달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으며, 7월에 제1차 집회를 가졌다.

8월

18일 [제2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21일 - 23일 「여성운동의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을 위한 '98 여성연대한판」

여성연대회의 주관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대학 여성운동가들의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에 대한 공유와 토론을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에 대한 토론회,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조직체계에 대한 토론회, 신규여성실업 문제에 대한 행사 등, 현 여성운동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는 전라북도지역에서도 출범한 여성연대회의 활동가들을 직접 만나보는 자리였으며, 또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여성연대회의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9월

15일 - 17일 [또 다른 선언 - 공산당 선언 150주년 학술제] 기획 및 참가

학술제 기획단에 총여학생회의 자료학술국이 참여했으며,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현재 획일화된 운동이 지배적인 대학사회에 대한 비판 속에서 다양한 운동들의 활성화와 연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21일 - 25일 [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직접행동주간] 선포

연세대 내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과 이의 기반이 될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알려나가기 위한 주간으로 활동했다. 자보전과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라는 팻을 사회대 Beyond와 공동 제작해서 학우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여자화장실 내에 백지 자보를 부착하여 성폭력 학칙에 대한 의견 및 사례 모집을 하였다.

30일 [제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9월 28일 - 10월1일 [살아야 한다 - 비상구, 돌과구를 찾아서] 여성신규실업 문제에 대한 행사

현재의 여성신규실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현 사회의 경제위기를 '공포'에 비유하는 공포영화제, 취업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민주광장에서는 항의엽서 쓰기와 민우회 발간 취업수첩 판매를 진행하였다. 여성모임 (FREeWAR)에서는 여성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베틀시장을 했다.

10월

14일 학내 7개의 자치단체들이 공동 개최한 [제11대 총여학생회 선거와 학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연대 질서를 위한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제11대 총여학생회 선거와 내년도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위한 토론회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올해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여성운동 속에서 '총여학생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30일 [제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상적인 활동

자치단체 연석회의 참석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서울경기지역 여성연대회의 참석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참석

생활도서관 운영